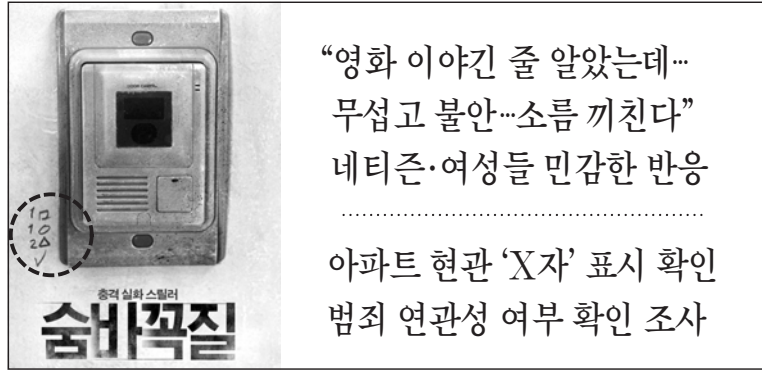


# 광주 '숨바꼭질 공포' 경찰, 본격 수사 나서



“영화 이야기긴 줄 알았는데... 무섭고 불안...소름 끼친다” 네티즌·여성들 민감한 반응

아파트 현관 'X자' 표시 확인 범죄 연관성 여부 확인 조사

영화 '숨바꼭질' 속 범죄자가 사용했던 표시가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이 범죄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광주일보 3월 6일자 7면> 이 글을 접한 네티즌과 여성들은 “영화 얘기긴 줄 알았는데, 사실이냐?”, “무섭고 소름 끼친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숨바꼭질 공포'에 휩싸였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숨바꼭질'은 초인종 옆에 의문의 알파벳 암호로 거주인 성별과 숫자를 표시해 도둑질할 집을 고른다는 서울 관악구발 '초인종 괴담' 등을 참고한 영화다.

이 영화에는 남의 집에 숨어 사는 범인이 주인공을 비롯한 범행 대상의 집을 관촬해 초인종 옆에 암호를 기록해 놓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화와 같은 일이 광주에서 발생해 경찰은 범죄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이 7일 광주시 북구 J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X자'와 '-자' 등 의문의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세

대 출입문 현관에서 'X자' 표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언제·왜 이 같은 의문의 표시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발견된 의문의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면 누가·왜 의문의 표시를 남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나사 괴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섭다.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이 표시를 해놓은 이가) 차라리 가스검침원이었으면 안심할 수 있겠다”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영화 얘기인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것이냐. 무서운 세상”이라고 썼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비리 복마전

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부패 고리 실태 보니**

고급 승용차에 매달 1000만원씩 상납하고 일주일 2~3회 톱살롱서 수백만원대 술판

‘고급 승용차에 매달 1000만원씩 꼬박꼬박 상납받고, 일주일에 2~3회 톱살롱에서 200만~500만원짜리 술판 벌이기...’

신안에서 진행중인 새천년대교 건설 과정의 부패 고리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원청~하청 업체간 ‘상납’ 고리 뿐 아니라 중소 자재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갑(甲)의 횡포’는 뻔뻔할 정도로 심각한 형편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능범죄수사대는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뇌물공여 등)로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를 구속했다. 또 자재납품

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로 하도급업체인 도양 기업 현장 소장 김모(46)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아울러 갑리업체와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하도급 선정 및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짜리 아우디 2011년식 A8 승용차를 받는다. 하도급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하도급업체인 도양기업의 공사비(3.3%)를 증액해 주고 차액 3억원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월 1000만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도 납품업자들에게 자재를 사들이면서 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2억원을 챙겨 박씨에게 일부를 상납하는가 하면, 유혹비

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1년 7개월 동안 시공사·갑리업체 직원들과 톱살롱에서 술값 등 유흥비로 쓴 돈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차례에 200만~500만원을 썼고 한 달 3000만원 가량을 쓴 셈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갑리업체 직원도 박씨 일행과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고 수차례 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경찰은 대우건설, 도양기업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 건넨 6개 업체를 우선 입건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떠내지 못하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원청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한 업체는 요구액을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압해읍과 압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는 5500억원이 투입돼 총 길이 10.8km(교량 7.2km)로 건설된다. 1공구의 경우 총길이 5.05km(교량 3.62km)로 2646억원이 투입되며 대우건설 등 8개 업체가 사업을 맡았다. 공사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45%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밤의 도심 교통사고

5일 밤 8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 6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일대 도로가 30분 이상 교통체증을 빚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 벌금 700만원 선고...검찰·법원 시각차

### 檢 “생명 너무 가볍게 여긴다” 法 “음주운전과 비교 부적절”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한 벌금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사람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사법정의’까지 내세우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사망사고 운전자와 단순 음주 운전자를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양측의 시각차는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A(44)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6시 47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도로에

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한 노인(70)을 치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2월을 구형했지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만 해도 나올 수 있는 벌금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선고됐다”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험에 들면 교통사고

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사고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사망사고 운전자와 단순 음주 운전자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A씨와 같은 과실범과 음주운전자 같은 고의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람이 숨진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형량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고의성 여부를 반영하면 (형량)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

### 수익원 받은 브로커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 관련해 거액의 수익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대표차 판 뒤 복사카로 다시 훔쳐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 대해 포차를 판 뒤 뒤쫓아가 미리 복사해둔 승용차 열쇠로 판매한 승용차를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26)씨 등은 지난달 4일 밤 9시께 경남 창원·마산시 회원구 A마트 앞길에 주차된 서모(27)씨의 오프로드 승용차를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대로 훔쳐 타고 왔다는 것.

○-이들은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순천까지 찾아온 서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뒤 곧바로 200km 이상 떨어진 경남 창원까지 뒤따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생활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대리운전 업체 사장·기사 새벽 교통사고 사망

새벽 시간 손님 태우러 가던 대리운전 업체 사장과 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6일 새벽 1시30분께 목포시 옥암동 A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서모(20)씨가 몰던 트라제 승합차가 앞서 가던 목모(40)씨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모닝 승용차는 충격으로 뒤편에서 도로 옆 통신선로 단자함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에 타고 있던 목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정모(35)씨는 인근 병원에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각각 대리운전 업체 사장과 기사로, ‘몰’을 받고 인근에 손님 태우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식당에서 일을 마친 뒤 술을 한잔 마셨다”는 서씨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승합차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길을 비켜주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